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연구*

A Study on the Core Courses of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엄 영 애 (Young-Ai Um)**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코어 교과목의 변화 |
|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 | IV.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분석 |
| 1. 학과 명칭의 변화 | 1.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목표 |
| 2. 문헌정보학 교육의 경향 | 2. 코어 교과목 현황 |
| III. 코어 교과목의 변화 | V. 결론 및 제언 |
| 1. 코어 교과과정의 의의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의 기초 과목으로 볼 수 있는 코어 교과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들이 코어 교과과정으로 인정되는 필수과목들을 개설하지 않으므로 1980년대의 필수과목들을 조사하여, 이들이 현재의 교과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학부제의 실시 이전과 비교하면 개설되는 코어 교과목들과 이들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별 변화가 없으며, 전통적인 코어 교과목인 자료의 수집, 조직, 봉사, 경영·관리 및 정보학 관련 교과목들이 교과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문헌정보학 교육, 교과과정, 코어 교과과정, 코어교과목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present status of core courses offered at the Department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this purpose, the core courses in the curriculum, which were compulsory ones in the 1980s, are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changes in the core courses offered and that traditional cores of selection, organiz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science-related courses are still strongly extant.

Key Words: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core curriculum, core courses

* 본 연구는 200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도서관학전공 교수(yaum@cu.ac.kr)
• 접수일 : 2003. 8. 11 • 최초심사일 : 2003. 8. 29 • 최종심사일 : 2003. 8. 31

I. 서 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정한 사서직을 배출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헌정보학과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문분야는 도서관학과 정보학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학문의 결합은 분명히 학문과 졸업생들 취업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처음 설립된 1957년부터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학과의 명칭이 문헌정보학과로 바뀔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대부분 학과의 교육목표는 거의 예외 없이 “전문직 사서의 배출을 위한 교육”¹⁾이었다.

1984년부터 문헌정보학과로 학과 명칭이 바뀌면서 정보학의 교과목이 도서관학의 교과 과정에 통합되고, 학과의 교육목표로 교육이나 배출의 대상으로 기술되는 경우가 사서나 사서직 보다는 전문사서 혹은 정보전문가라는 명칭이 선호되고 있다. 학과의 명칭과 교육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것은 교과과정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과과정은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직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기술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인 교과목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코어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들로 짜여지고, 이 과목들은 학문분야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타학문과의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건축으로 비유하면 기초공사나 네 기둥에 해당하는 코어 교과목들은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목들로, 이것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교육과 봉사가 가능한 것이다.

거의 모든 학문과 전문직의 분야들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그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발전으로 표현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세분화와 전문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 분야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서직의 교육이 거의 반세기 전에 시작되어 이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도서관의 사서직에만 기대되던 역할이 정보전문가의 역할로 대체되면서 교과과정의 범위와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문헌정보학의 경우는 두 학문이 합쳐진 학문이므로 교과과정의 변화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서교육에 있어서 전문화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근거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보다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전문화에 필요한 교육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수되어야 할 과목들이

1) Young Ai Um, *Library Education in Japan, Republic of Korea, and Taiwan: A Comparative Study* (Ph.D. thesis, Loughborough University, 1987), p. 160.

코어 교과과정에 속하는 과목들이다.

문헌정보학의 코어 교과과정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문헌정보학과가 필수과목들을 개설하지 않고 선택과목만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코어 교과과정의 개념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1989년에 조사된 24개 문헌정보학과 (당시의 도서관학과)에서 공통으로 개설되었던 필수과목들을 확인하여²⁾, 이 과목들을 코어 교과목으로 인정하였다. 이 과목들이 현재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에 어느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1989년에 조사된 24개학과 필수과목들의 개설 상황과 비교하였다. 현재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의 개설 상황과 운영 방법, 그리고 문헌정보학 교육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의도이다.

II.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

1. 학과 명칭의 변화

미국에서 듀이(Melvil Dewey)가 1887년에 처음 시작한 교육기관의 명칭은 School of Library Economy였으며, 이후에는 School of Librarianship이라는 명칭이 1970년대까지 거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용되었다. 그 후 정보학의 교과목들이 도서관학 교육에 포함되면서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학과의 명칭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학과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향과 도서관을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20여 년의 혼란기를 거치고 이제는 명칭에 대한 논란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은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다. 이와 함께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도 사용되며 도서관을 제외한 기관은 57개교 중 6개교에 불과하다. 이 수는 1997년도 연구 결과인 8개교³⁾나 과거에 학과 명칭에서 도서관을 빼자는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그 수가 많다고 볼 수 없다. 이외에 사용되는 학과 명칭은 School of Information Studies나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그리고 School of Information Science and Policy 등이다.

미국의 도서관협회가 1992년에 제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인가기준은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 Information Studies”로 학문에 Science 대신 Studies를 쓴 것이 1972년 기준과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문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1989), pp.37-57.

3) 엄영애, “미국, 영국, 한국 사서직 교육의 비교”, 도서관학논집, 27집 (1997 겨울호), p. 13.

이나 학과의 명칭에 학 (science)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나 science와 study는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도서관학의 경우에는 정보학이 science 라는 데에 아무런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과는 달리, 도서관학이 science 인가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librarianship이나 library studies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보학과 결합되면서 학과 명칭에 science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인가 기준은 studies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과의 명칭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도서관과 정보기관의 활동과 도서관학과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 분야가 도큐멘테이션 분야이다. “인류의 지식에 공헌하는 모든 기록자료인 문헌 (documents) - 도서, 잡지, 신문, 서지, 정부의 행정기록, 특허, 상품목록, 색인, 초록, 리뷰 - 에 대한 연구⁴⁾로 정의된 도큐멘테이션은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66년부터 도서관학과에서 교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정보학이 포함되면서 교과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에서는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통용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정보학으로 대체되었다.

정보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정보의 라이프 싸이클, 다시 말해서 정보의 생성, 흐름 (입수, 색인, 축적, 검색 및 평가), 그리고 이용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로 보고, 도서관학은 이 사이클에서의 수집, 색인 및 조직, 축적, 검색 및 평가부분들을 도서관에서 수행될 때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⁵⁾”이라는 정의는 많은 공감을 얻는다. 미국에서 정보학의 강의는 1955년에 처음 개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헌정보학은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분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분야⁶⁾로 이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에 처음으로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학과가 문헌정보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문 명칭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다.

2. 문헌정보학 교육의 경향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결합으로 탄생하였기에 문헌정보학의 교육에 정보학과 관련된 컴퓨터와 정보기술 관련 교과목이 포함될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W. Boyd Raywar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Library History*, Vol. 20 (Spring 1985), p. 123.

5) Lawrence W. S. Auld, "Seven Imperatives for Library Education," *Library Journal*, Vol. 115, No. 8 (May 1, 1990), p. 57.

6) Harold Borko,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Information Science*, Vol. 35, No. 8 (May 1984), p. 185.

또한 학문의 중심이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정보로 옮겨지고, 도서관과 정보센터의 봉사 대상인 이용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변화도 문헌정보학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생성에서부터 수집과 분석 및 조직, 축적과 검색 및 이용에 관련된 이론을 다루는 학문으로,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목표는 이러한 이론과 지식, 그리고 기술까지 갖춘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을 배출하는 것이므로 학문과 교육 모두 속해있는 사회의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경향은 정치적인 요인부터 경제, 문화, 사회 및 기술적인 모든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교육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에서 반영되었듯이 도서관학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보다 넓은 정보학의 분야로 광범위하게 옮겨간 것이다.⁷⁾

최근에 미국의 사서직 교육기관, 특히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수행된 KALIPER (the Kellogg-ALISE Information Professions and Education Reform Project) 연구는 W. K. Kellogg 재단의 지원으로 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에 걸쳐 수행한 프로젝트이다. 연구의 목적은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발생한 주요 교과과정 변화의 특성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사서직 교육에 대하여 최초로 상세하게 조사한 Williamson 보고서 (1923) 이래로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가장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이다.⁸⁾

KALIPER 연구의 결과 밝혀진 주요 경향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과정이 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업무 이외에 정보환경과 정보 문제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룬다.
- 2)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이 다른 분야의 관점들을 계속 통합하면서 이용자 중심인 명백한 코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 3)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들이 교과과정에 정보기술을 위한 투자와 아울러 정보기술 교과목들을 계속 통합하고 있다.
- 4) 교과과정 안에서 전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실험하고 있다.
- 5) 교육기관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융통성 있게 교육하기 위하여 여러 다른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7) Daniel Callison and Carol L. Tilley, "Descriptive Impressions of the Library and Information Education Evolution of 1988-1998 as Reflected in Job Announcements, ALISE Descriptors, and New Course Titl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2, No. 3 (Summer 2001), p. 199.

8) Karen E. Pettigrew and Joan C. Durrance, "KALIPER: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Result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2, No. 3 (Summer 2001), p. 170.

- 6) 학부, 석사 및 박사과정의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교과과정을 확대하고 있다.⁹⁾

1970년대에 들어서서 사서직 교육기관이 문을 닫기 시작하였고, 특히 오랜 역사와 명문으로 알려진 Columbia와 Chicago 대학교의 도서관학교가 폐교된 후 팽배하기 시작한 위기감은 1990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게 되었다. 여러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현상들, 다시 말해서 대학원 과정만으로 야기되었던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부에 정보관련 학과를 개설한다든가, 다른 학문분야와 협력하여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의 출현 및 이용 가능한 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원거리 교육의 실시들이 KALIPER 연구에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히 경향으로까지 볼 수는 없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된 학부제의 실시, 이와 함께 많은 대학에서 실행한 필수과목의 폐지, 학과명칭의 변화로 정보기술과 정보학 관련과목의 증가. 모든 대학교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몇몇 대학교의 경우에 학부학생의 수는 감소하지만, 대조적으로 대학원 학생들의 수적 증가로 석·박사 과정의 활성화 등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경향인 것이다

Ⅲ. 코어 교과목의 변화

1. 코어 교과과정의 의의

교과과정은, 교육기관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공식적인 수단인 것이다. 교과과정은 교육에 기대되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실제로는 학생들과 교육프로그램, 전문직과 교육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¹⁰⁾

핵심이라는 의미의 코어는 어느 학문 분야나 전문직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학문분야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종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기술과 지식, 그리고 태도는 모든 학생에게 요구될 것이다. 다른 과목들이 기반으로 하여 전문화하는 데에 기본이 되는 개념을 강조해 줌으로써 어떤 분야의 통합된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9) Stuart A. Sutton, "Trends, Trend Projections, and Crystal Ball Gazing,"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2, No. 3 (Summer 2001), p. 243.

10) Robert M. Hayes, "Education of the Information Professional: A Library School Perspectiv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9, No. 5 (Sept. 1988), p. 314.

11) Timothy Sineath, "Information Science in the Curriculum,"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Vol. 16, No.

Hays는 코어교과과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및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으로 전문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2. 목록, 관리, 참고봉사 등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도록 한다.
3. 보다 고도의 지식과 업무를 위한 준비로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4.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5. 전문직과 사회적 요구 및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6. 다른 환경이나 기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7. 교육기관을 바꾸더라도 적응할 수 전학가능성.
8. 졸업생들이 첫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기본능력배양.¹²⁾

코어의 개념은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수행하는 활동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정리, 그리고 이용시키는 곳이므로 수집을 위하여 자료선택이 필요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류, 목록을 하고, 이용을 위한 참고봉사와 지원업무, 전반적인 과정을 조직하기 위한 관리 능력 및 도서관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도서관과 사회, 도서관사 및 연구방법이 필요하고, 이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컴퓨터의 역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코어 교과과정은 이와 같이 도서관 활동의 “무엇”과 “왜”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1960년까지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¹³⁾

1976년에 IFLA가 제정한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에는 전문직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에는 기초가 되는 ‘코어’ 주제와 ‘전문화를 위한 주제’들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IFLA가 제시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커뮤니케이션 기관으로서의 도서관과 사회
2. 서지의 원리와 방법
3. 도서관 자료조직의 원리와 방법
4. 참고 및 이용자 봉사의 원리와 방법
5. 인쇄 및 비인쇄자료의 선택, 수집, 이용의 원리와 방법

1/2 (1992), p. 58.

12) R. M. Hayes, "The Core Curriculu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Library Education Programme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82. p. 167.

13) Guy A. Marco, "The Demise of the American Core Curriculum," *Libri*, Vol 44 (1994), p. 185.

6. 도서관 관리의 원리와 방법
7. 도서관사
8. 서적에 관한 연구
9. 도서관 연구의 원리와 방법
10. 도서관 자동화의 원리와 방법
11.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학의 원리와 방법
12. 도서관계획, 건축 및 장비의 원리와 방법

이 기준은 코어를 이수한 학생들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전문화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문학과 봉사, 주제별서지, 공공도서관 봉사, 대학도서관봉사, 학교도서관봉사, 과학도큐멘테이션, 분류·목록 등이 전문화된 분야들이다.¹⁴⁾ 다시 말하면 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도서관의 전문분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기초과목인 코어 과목들을 이수하고 전문화된 과목들을 이수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제시된 영역들이 교과목이 아니라 주제나 세분된 분야인 것이다.

A.L.A.의 도서관·정보학 석사 프로그램의 인가 기준은 교과과정이 정보와 지식의 생성, 커뮤니케이션, 확인, 선택, 수집, 조직 및 기술, 축적과 검색, 보존, 분석, 해석, 평가, 조합, 배포, 그리고 관리를 포함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전문화된 분야의 봉사와 활동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 분야의 학습경험은 도서관·정보학의 일반적인 기초영역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¹⁵⁾ 여기서 기초영역을 코어 교과목으로 볼 수 있다.

교과과정은 전문직을 통일하는 이론으로 지식기반에 대한 정의를 내포하고 가치를 분명히 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코어 교과과정의 이론적 근거는 어떤 한 분야가 대표하는 모든 것들의 근간이 되는 공통적인 것들을 본질적인 것으로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후에 전문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¹⁷⁾ 학문분야를 타 분야와 구분하여 정체성을 인정받고, 전문직 종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 주기 위하여서는 이들 모두가 이수해야 할, 다시 말해서 이론과 지식을 배워서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어 교과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Foskett는 정보학의 교과과정은 지식의 세계, 지식의 생산과 출판, 자료의 수집과 배열, 지식의 배포와 이용, 도서관과 정보봉사의 기술, 기획과 관리, 그리고 비교연구 및 역사적 연구로 제안하며 모든 학생들이 전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¹⁸⁾고 했

14) "Standards for Library Schools, 1976," *IFLA Journal*, Vol. 2 (November 1976), pp. 219-220.

15) *Standards for Accreditation of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1992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2), pp. 11-12.

16) Margaret F. Stieg, *Change and Challen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Chicago: ALA, 1992), p. 106.

17) Guy Garrison, "Needed: A Core Curriculum for a Diversifying Profess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9, No. 2 (Fall 1978). p. 181.

다.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이 코어에 속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코어와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필수과목으로 개설되는 코어 교과목들은 대부분 정보전문직의 기본적인 책임들, 즉 지식과 정보의 수집, 조직, 배포 및 이용을 다룬다. 이 과목들은 다른 보다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근간으로 해야 할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것들로 정보를 다루는 활동에 공통이 되면서 다른 직종과는 구분이 되는 특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과목들인 것이다.

2. 코어 교과목의 변화

문헌정보학 분야의 코어 개념은 일찍이 1901년경에 미국의 사서들이 모든 도서관학교 학생들은 목록, 분류, 서지, 참고업무, 도서선택, 입수업무, 도서제본, 서가업무, 도서관 건물, 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편집 및 인쇄, 그리고 색인작성 등의 주제를 배워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¹⁹⁾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말에 시작된 Dewey의 도서관학교에는 코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도제제도에 가까운 교육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은 실습위주로 짜여져서 필수와 선택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1920년경에는 도서선택, 주문과 수집업무, 서지, 참고, 목록, 분류 및 주제표목업무, 대출부서업무, 도서관행정, 도서 및 도서관사의 9과목을 여러 교육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필수과목으로 볼 수 있는 코어 교과목들은 도서관의 업무에서 전문화(specialization)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요구가 생긴 1930년대부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1940년대에 교육자들은 교과목의 순서, 다시 말해서 필수적인 과목들을 먼저 수료한 후에 전문화된 선택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한다.²⁰⁾ 이 때에 조사된 코어 교과과정은 도서선택, 분류·목록, 참고, 행정, 그리고 도서 및 도서관사 (Chicago 대학교는 도서관과 사회)였으며, 1950년대에도 도서선택, 분류·목록, 참고업무, 도서관행정, 도서 및 도서관사, 연구방법 커뮤니케이션이나 도서관과 사회가 코어 교과목으로 인정되었다.

1950년대에 설립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교과과정은 학부과정으로 이수 학점이 대학원 과정과는 달리 훨씬 많았으므로 코어 교과목들이 광범위하게 개설되었었다.

18) D. J. Foskett, "Information Science as an Emerging Discipline: Educational Implications," *Journal of Librarianship*, Vol 5, No. 3 (1973), p. 165.

19) Marco, *op. cit.*, p. 177.

20) Ray Irwin, "Characterizing the Core: What Catalog Descriptions of Mandatory Courses Reveal abou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chools and Librarianship,"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43, No. 2 (Spring 2002), p. 176.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도서 및 도서관사가 코어에서 빠지기 시작하였으며, 대신 data processing이나 도서관자동화가 코어로 등장하였다. 1960년대에 코어가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때까지는 코어의 개념이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의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및 성균관대학교의 교과과정에도 도서관학의 기본적인 코어 과목들이 교과과정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표적인 코어인 도서선택, 분류·편목, 참고봉사 및 도서관 경영과 아울러 전문화된 과목들인 주제별서지와 관중별 도서관 등도 필요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현재보다 세분되게 개설되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에 정보학의 과목들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사서직 교육기관의 명칭에 정보학이 포함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신생학문으로 정보학이 포함된 것은 교과과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리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도서선택, 분류목록, 참고업무, 도서관운영과 관리, 도서 및 도서관사, 연구방법과 도서관과 사회(커뮤니케이션 포함)의 전통적인 코어가 유지되는 한편, 코어 과목 대신에 통합코어(Integrated Core) 혹은 기초과목(Foundation)으로 여러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 코어 주제를 포함시킴으로써 코어의 개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통합코어를 채택함으로써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¹⁾

도서의 선택, 정리, 참고봉사와 도서관경영관리의 도서관학 코어에 정보학의 코어가 결합된 것이 문헌정보학의 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정보학 자체의 출현이 도서관 업무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유래하였다고 생각한다면, 코어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정보학의 코어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기도 한다.

- * 정보의 생성, 생산, 관리, 배포 및 이용을 의미하는 정보환경;
- * 정보와 정보학, 그리고 정보기술의 정의를 포함하는 정보학과 정보기술의 기초;
- * 정보기관의 장서개발과 관리의 원리를 포함하는 정보원의 선택, 수집 및 평가;
- * 지적자료의 기술과 색인을 포함하는 정보내용의 표현;
- * 정보추적을 위한 매체 및 탐색전략을 포함하는 정보에의 접근과 검색²²⁾

정보학 분야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코어주제의 개요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보환경, 전문직의 환경, 기록과 정보내용에 접근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관리와 기본이 되는

21) "The Core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Vol. 19, No. 2 (1978), p. 156.

22) J. M. Pemperton and C. R. Nugent, "Information Studies: Emergent Field, Convergent Curriculum,"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36, No. 2 (Spring 1995), p. 133.

능력으로 여기에 컴퓨터와 인간관계, 그리고 시스템 분석 등과 관련된 능력이 포함된다²³⁾는 주장도 있다. Sineath는 코어를 어떤 분야의 기본적인 면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기반으로 보고 정보학의 경우 코어의 주제를 정보의 특성과 이용 및 관리방법, 정보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법, 기관 및 도구로 언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인 환경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

1970년대 이후 필수과목들은 교육기관들이 정보학을 통합하고 아울러 다른 정보직들을 포함시키려고 교육프로그램을 확장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수과목들 중 많은 과목들이 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정보학의 이론적인 접근을 정보에 반영하게 되었다²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73년에 대학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이 이전의 160학점에서 140학점으로 줄면서 전공선택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도서관학과목만 필수로 남고, 주제별서지과목과 관종별 경영과목이 필수에서 선택으로 넘어갔으며, 정보학 계통의 과목이 새로 등장한 반면에 어학 과목이 크게 축소되었고, 개설학점 수에 있어서도 학교간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²⁶⁾

1985년의 연구 결과는 모든 학과 (그 당시는 도서관학과)가 9과목 정도의 필수과목을 개설하고, 자료의 선택, 수집, 분류, 편목, 참고 및 경영과 아울러 정보학 등의 전통적인 코어과목들을 이수토록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에 학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계속되고 1993년에는 필수과목을 폐지한 학교가 있는 반면에 과목 수는 평균 10과목으로 증가하였다.²⁷⁾ 이 때에 도서관자동화론이나 도서관전산화등이 필수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미국의 사서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결과는 정보학이나 정보기술과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컴퓨터관련과목들을 소개함으로써 오랫동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코어 교과목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하였다.²⁸⁾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코어의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2001년에 미국의 48개 ALA 인가 대학원의 교과과목을 분석한 결과, 코어 교과목명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개념들은 도서관/사서/사서직 봉사, 정보의 조직, 정보학, 연구, (도서관 및 정보센터) 관리, 자료, (정보)기술, 장서 (개발 및 관리)로 밝혀졌다. 결론은 과목명이나 과목 해설에는 명목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개념 사용을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친근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비록 교과목들을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은 하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일

23) Patricia Layzell Ward, "Professional Education i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20th Century,"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24 (2000), p. 120.

24) Sineath, *op. cit.*, p. 58.

25) Stieg., *op. cit.*, pp. 110-111.

26) 구본영, "도서관학 교육의 회고," *도서관학*, 16집 (1989.6), p. 17.

27) 엄영애, "도서관학 교과과정의 변화," *도서관학논집*, 20집 (1993), p. 118.

28) Marco, *op. cit.*, p. 178.

한 필수과목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코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²⁹⁾

문헌정보학교육의 교과과정 변화는 도서관 전문직의 실행분야와 정보학의 이론적인 분야의 결합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서 학문의 중심이 도서관이라는 기관에서 정보와 이용자로 옮겨짐으로 코어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확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도서관학의 코어인 자료의 선택, 조직, 참고봉사, 도서관 경영·관리에 정보학의 이론과 기술이 코어로 자리 잡았으며 용어의 변화도 가져온 것이다.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은 그들의 영역이 정보와 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조직, 운영, 배포, 여과, 수송, 검색, 접근 및 평가되는가에 관련된 인식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⁰⁾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어 교과목의 변화는 도서관학 분야의 전통적인 코어인 도서선택, 분류·편목, 참고 및 경영이 새로운 코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도서선택은 장서관리, 장서관리 혹은 정보자료로, 분류·편목은 정보의 조직이나 축적으로, 참고는 정보원이나 정보봉사 및 검색, 혹은 이용자와 이용으로 바뀌었고, 경영은 경영관리 혹은 시스템관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도서관자동화와 정보기술을 포함하는 정보학의 코어 교과목들이 합쳐진 것을 새로운 코어 교과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도 새로운 코어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³¹⁾

IV.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목 현황

1. 문헌정보학과 교육의 목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교과과정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교과과정의 연구는 교과과정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문헌정보학과들이 정의하는 학문의 특성과 교육의 목표는 <표 1>과 같다.

29) Irwin, *op. cit.*, pp. 180, 181, 182.

30) Pettigrew and Durrance, *op. cit.*, p. 175.

31) Hayes, "Education of Information Professional," p. 314.

〈표 1〉 문헌정보학의 정의와 교육의 목표

학과	학문의 정의	교육의 목표
A	문헌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이론	전문사서의 양성
B	각종 자료의 수집, 정리, 축적, 배포에 관한 이론 및 방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전통적 수단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이론과 방법을 이해하여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C	정보의 입수, 처리 및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반 이론과 기술	정보의 선택 및 조직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정보처리 및 검색 등의 능력을 구비한 전문인을 양성
D	지식과 정보의 생산, 가공, 축적, 검색, 제공, 그리고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연구	지식정보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양성)
E	기록정보를 수집, 조직,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시키는 것과 관련된 (학문)	정보전문가의 양성
F	각종 문헌을 학문과 인류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의 지식과 체계를 연구	(정보사회의 주역 양성)
G	지식과 정보의 수집, 축적, 검색 및 이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식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학문	정보전문가의 배출
H	문헌이나 정보와 관련된 사실과 현상을 규명하고 사회적 적용 가능성을 추구하는 학제적인 학문	전문사서양성
I	문헌의 인식, 수집, 정리, 운용에 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종합학문	—
J	정보의 발생, 성질, 형태 및 유통현상에 관한 원리와 정보유통시스템의 설계와 운용을 포함하는 학문	(문헌정보처리기관으로 진출하는 전문직종종사자 양성)
K	각종 정보를 인지, 수집, 처리, 축적, 유통 및 배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정보전문가의 양성

여러 학과의 문헌정보학 정의는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 문헌이나 정보, 지식과 문헌정보를 다루는 학문으로 보고 있다. 도서나 자료 대신에 정보와 지식 혹은 문헌정보를 사용하고 이어나 이들의 수집, 정리, 축적 및 배포 등 기존의 도서관학에서 다루던 내용들이 다른 용어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학과의 교육목표도 이전의 사서직의 배출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정보전문가라는 용어가 가장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들의 명칭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2. 코어 교과목 현황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과의 코어 교과과정은 도서관학의 자료선택, 자료의 조직, 참고봉사를 포함하는 이용자 봉사, 그리고 도서관 경영 및 관리에 정보학의 코어가 결합된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사용되는 과목명의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1989년에 수행된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조사된 24개 대학 모두 평균 8과목, 24학점에 달하는 전공필수과목을 개설하였다. 필수과목에 포함된 교과목들이 학문의 코어분야인가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필수과목으로 개설은 되었으나 코어 과목에 속하지 않는 과목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필수과목의 분석결과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들은 자료의 분류와 편목을 포함하는 자료조직, 도서관 경영과 관리, 정보봉사를 포함하는 참고 봉사 및, 서지학, 장서구성을 포함하는 자료선택의 순으로 많이 개설되었다. 코어교과목이 어느 정도 개설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수과목으로 개설한 학과 수와 선택과목으로 개설한 학과 수를 합쳐서 평균을 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1989년 코어 교과목의 개설상황

과목명	개설과목 수			평균개설 과목수
	필수	선택	합계	
자료조직(론, 법, 분류, 목록)	48	27	75	3.1
도서관경영(론, 학 조직관리)	21	9	30	1.3
참고 및 정보봉사 (정보봉사전, 도서관봉사전)	25	2	27	1.1
자동화론 (기계화론, 전산화론)	7	18	25	1.0
자료선택 (론, 장서개발(론), 장서구성(론))	16	8	24	1.0
정보검색론 (법, 이론)	10	14	24	1.0
도서관사 (도서 및 인쇄사)	8	14	22	0.9
정보학 (개론, 원론)	16	3	19	0.8
사서실습	4	14	18	0.8
서지학개론	14	2	16	0.7
독서지도론	4	12	16	0.7
전산 (컴퓨터)정보처리	3	13	16	0.7
도서관학개론	13	0	13	0.5
정보와 사회	2	9	11	0.5
도서관정보학개론	4	2	6	0.3

2003년 현재 11개 대학교의 문헌정보학과의 교과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들 중에서 필수과목을 지정한 학과는 2개 학과에 불과하고 지정된 과목수도 극소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11개학과의 교과과정은 19과목을 개설 한 학과에서부터 46과목을 개설한 학과까지 개설과목 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코어 영역에 속하는 과목들이 학과 평균 19-20과목 쯤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과과정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것이다. 평균 33과목으로 짜여진 교과과정의 분석결과는 여전히 자료조직이 39과목으로 개설되어 한 학과에서 평균 3과목 이상 개설하여 가장 많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

었다. 11과목 이상 개설되어 모든 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과목들이 정보봉사론,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 장서관리 및 정보검색이다. 사서직 교육의 코어 교과목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03년 코어 교과목 개설 현황

과목명	개 설 과목수	평균 개설 과목수
* 자료조직(분류, 목록, 분류표, 목록규칙)	39	3.5
* 정보봉사론(정보서비스론, 참고·정보봉사론, 정보조사제공론)	12	1.1
* 도서관정보센터경영론(정보센터경영, 지식정보기관경영론)	12	1.1
* 장서관리(정보선택, 장서구성, 장서관리, 자료선택법, 정보자료구성론, 정보자료선택)	11	1.0
* 정보검색(론)	11	1.0
* 서지학개론(입문, 이해)	10	0.9
* 정보시스템(분석론, 이용론, 구축론, 계획 및 분석)	10	0.9
* 도서관사(도서관문화사, 정보매체발달사, 문헌정보학사)	10	0.9
* 문헌정보학개론(원론)	8	0.7
데이터베이스 (구축론, 설계와 관리, 활용론)	8	0.7
정보매체론(멀티미디어, 뉴미디어론, 정보미디어의 이해)	8	0.7
* 독서지도론(교육론)	7	0.6
* 도서관자동화(전산화)	6	0.5
정보네트워크론 (도서관정보네트워크, 학술정보네트워크)	6	0.5
색인 및 초록(법)	6	0.5
정보이용자론(정보이용자의 이해)	5	0.5
* 정보와 사회(정보사회론)	5	0.5
인터넷기술(도서관과 인터넷기술, 인터넷자료 활용론, 인터넷서비스구축론)	5	0.5
정보처리법(컴퓨터정보처리법)	5	0.5
연구방법론	5	0.5
* 실습	5	0.5

* 1989년의 필수과목

V. 결 론

문헌정보학과의 교육목표가 과거의 사서직 양성이나 사서직 교육에서 정보전문가의 양성으로 바뀐 것과 비교해서 개설되어 있는 코어 교과목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코어 교과목의 실종이나 부족 현상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코어 교과목들이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느낌이 든다. 도서선택, 자료조직, 봉사 및 경영의 도서관학 코어 교과목들이 과목명에 차이는 있으나 여전히 핵심과목들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과목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른 과목명으로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비록 과목명은 다를지라도 가르치는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코어 과목들이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선택과목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나 장려는 할 수 있다 있겠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과목의 선택 때에도 필요한 순서, 예를 들어서 선수과목을 배운 후에야 이수가능한 교과목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 할 것이다.

정보전문가라는 용어는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가 사서직에 비해서 보다 전문화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히 전문화된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다. 코어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문화의 교육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문화된 교육은 여러 번 되풀이 된 바와 같이 기초가 되는 코어 교과목의 이수 후에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므로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코어 교과목을 이수하고, 적절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명실공히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들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에 필수과목들로 지정된 과목들이 코어 교과목의 의미로 개설이 되었던 가도 우리의 경우에는 의문이 든다. 필수과목들이 코어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전문화된 영역들이 학과와 교수들의 편익에 의해서 개설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과의 학문의 정의나 교육의 목표에서 보듯이 일관되고 통일된 정의나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설되는 교과목들이 주어진 학과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학과 문헌정보학이 처한 상황이 교육에 유리하지만은 않다. 위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이란 말도 심심하지 않게 들리고 있다. 대학교육의 특성화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면 학과의 특성화도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정보학과의 특성화는 전문화 교육을 통한 전문 분야의 정보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자격을 갖춘 사서들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여 왔다. 이제는 많은 학과들이 교육의 목표로 하는 정보전문가를 제

대로 배출하여야 하고, 코어 교과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분야의 정보전문가들을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각 학과들이 속하고 있는 대학교와 구성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과 경력, 타 학과와의 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을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문분야의 정의와 교육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전문직의 교육은 전문직의 현장과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 단체나 학회의 종합적인 요구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도서관협회가 교육기관을 인가하기에 교육의 목표와 시설, 교육의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통일된 교육이 가능할 수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협회가 교과과정에 관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경우에는 대학 행정의 편의에 따라 개개 학과 나름대로 교과과정이 운영되므로 합리적인 교과과정의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교과과정이 교육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짜여졌는가? 교과목 명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과의 이해 관계에 개의치 않고 객관적으로 공정한 검토와 반성이 절실한 것이다.

코어 교과목 명들은 문헌정보학과의 정한 학문의 정의나 교육의 목표와는 달리 도서관학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고 있으며, 정보학이나 정보기술과 관련하여서도 새로운 과목의 추가는 많지 않다. 정보네트워크와 인터넷기술 등의 정보학 분야 과목들도 도서관학의 교과목에 정보기술이 적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정보의 환경 변화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문헌정보학과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대학행정의 틀 속에서 대학 교육의 정책에 따라서 교과과정이나 교육환경이 결정되는 것이다. 교과과정은 학과의 교수와 분리하여 논의될 수 없는 것으로 4-5명의 교수로 필요한 전문화의 교육이 어려운 것은 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코어 교과목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연구 이전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 문헌정보학과들의 교육환경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르치는 교수들의 수나, 이들의 교육적 배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가르치는 내용에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헌정보학과들이 교육의 목표로 하는 정보전문가는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전문직으로 정보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종이다. 그리고 정보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사서직과 정보전문가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문헌정보학과들의 책임이고 교수들의 임무인 것이다. 코어 교과목과 전문화를 위한 교과목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에 사서직과 정보전문직의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